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도마위'

지인과 함께 제주여행 온 20대 女 어제 극단적 선택 평소 공황장애·우울증 앓아... 격리당시 불안감 호소 격리자 대상 정신건강 상담 등 부실 대처 논란 야기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2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 여성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도 정신건강 상담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A(27)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도보건강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방글라데시에서 제주로 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도내 18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기내 접촉자로,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도인재개발원에서 격리중이었다. 또 18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A씨의 지인도 도인재개발원에 격리됐다. 앞서 A씨 지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보건당국에 A씨의 신변 확인을 부탁했다.

경찰은 A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약을 먹어 온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도인재개발원에 입소하기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이 다 떨어졌다'며 자신이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을 알리지 도보건강국이 해당 약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격리 중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자가 격리 중인) 지인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입소 후 A씨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보건강

국이 격리자 명단을 보내오면 이를 근거로 전화로 걸어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A씨는 이런 상담을 받지 못했다.

도보건강국 관계자는 "A씨가 입소한 날은 토요일로 주말이 끼어 있어 입소자 명단은 22일 오전쯤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낼 예정이었다"면서 "명단 자체가 송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간지인 제주도의사회회 회장은 "공황장애 환자들은 발작이 올 경우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A씨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그

런 상황이었는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복용했던 약을 보면 질환이 오래 지속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격리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이런 일들은 불행한 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경고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중 제주에 거주지가 없는자를 도인재개발원에 임시 수용하고 있다. 현재 도인재개발원에는 20여명이 격리돼 있으며 제주도는 위 늦게 이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민·강다혜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조치됐던 2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희만기자

도, 코로나 확진 안산시민 상대 손배소송

유증상에도 해열제 복용하며 제주여행... 강남 모녀 이어 두번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코로나19 확진자 A(경기 안산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도에 입도해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35분쯤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지만, 계속해 제주 관광에 나섰다. A씨는 여행기간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

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 및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등 사후 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시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권의, 개인신상보호, 심지어 분리된 통선으로 출도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태원기자

도지정 해수욕장 11곳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 지정 11곳 해수욕장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대원인 팀장 34명과 의용소방대원 44명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수상구조대에 대한 지휘, 조정, 통제 역할을 하며 의용소방대원은 수번 안전요원 역할을 한다.

소방당국은 평소 이용객이 많은 이호, 중문, 협재, 함덕 등 4개 해수욕장에서는 119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한다. 이상민기자

경찰, 대도로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도민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음주감지기가 전국 경찰청에 도입·활용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에서도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활용 후 매일 1~2건 이상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주요 도로 및 취약 장소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경찰과도 주 1회 합동 단속을 통해 대도로변, 유흥·식당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선별적 음주단속 및 짧은 시간(30분~1시간) 이동하며 단속하는 점포형 이동식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태원기자 ty9456@ihalla.com

관광진흥법 위반 골프동호회 대표 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가 사실관계 인정" 자치경찰 "무등록 여행업 혐의"

속보= '자치경찰 도내 최대 규모 골프 동호회 수사 착수(5월 20일자 4면)'와 관련 동호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호회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동호회 수사를 진행해 온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골프동호회를 운영하며 골프 예약 대행·알선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개설된 해당 동호회는 회원 수만 1만8000여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골프동호회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동호회에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홍보하면서 대규모 골프 행사 시에 후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지난 해 10월부터는 자신과 거래하는 골프장들로부터 받은 컴프(그린피 무료 이용권)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2000여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후 생활비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리 동호회가 범죄 단체도 아닌데 사전에 제보가 있었다면 감독부서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도해야 함이 마땅한데, 대대적으로 표적 기획 수사를 했다고 하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만일 우리 동호회 활동이 법을 어겼다면 그동안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대표로서 어떠한 처벌도 당당히 받겠다"고 말했다. 김현식기자

방문판매업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방문판매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노인층을 유인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방문판매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 여부, 방문판매업 신고증·판매원 명부 비치 여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발열 확인·출입자 대장 작성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확인한다.

한편 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집단 판매 업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계연의날 기념 청각장애 및 흡연가 이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피프, 사탕, 가리근, 구취제거제, 은단, 비타민C)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백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 국제보청기(국가계정) ● 한라체육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 제주광역시 ● 시청
제주중앙여고 ●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